

9.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년 3월 2일
- 청 원 인 : 조광현
- 소개의원 : 이영애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3월 3일
- 상정일자 : 제2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1년 3월 22일), 채택

2. 청원 요지 및 내용

□ 청원요지

- 본 청원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관인 대구광역시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기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음.

□ 주요내용

- 박물관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문화 기반시설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아이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시설임.

- 대구시는 시장공약인 시립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외에는 박물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고 부실하여 박물관 지원, 육성과 무관한 규정이 되고 있음.
- 이에 대구광역시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박물관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개정을 청원함.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홍병탁)

□ 검토결과

- 본 청원은 대구광역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16. 4. 11. 제정·시행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 박물관 진흥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구임.
-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박물관은 총 17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사립·대학 박물관 11개소를 제외한 6개소가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립 박물관이고, 이마저도 모두 특정 분야의 자료를 모아 전시하는 전문 박물관일 뿐 대구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립 종합박물관은 아직 없는 상황이며,

- 대구시 공립 박물관 6개소 중 3개소(국채보상운동기념관,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대구섬유박물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3개소(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향토역사관, 대구근대역사관)는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대구향토역사관과 대구근대역사관의 경우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탈락하는 등 대구시 공립 박물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체적인 박물관 진흥 정책을 기존 조례에 새로 규정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청원인의 청원취지는 어느 정도 시의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청원인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담당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대구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본 청원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청원의 건은 채택하되,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부서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적극 동의하며 향후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의견 채택 및 본회의 부의(재석의원 전원찬성)

8. 종합의견

- 본 청원은 2021. 3. 2. 청원인 조광현이 제출한 것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관인 대구광역시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기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임.
- 현재 대구시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립 종합박물관은 없고, 특정 분야의 자료를 전시하는 전문 박물관이 6개소만 있을 뿐이며, 이중 대구향토역사관과 대구근대역사관의 경우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공립 박물관 평가 인증’에서 탈락하는 등 대구시 공립 박물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박물관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 박물관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진흥

계획 수립·시행 등 구체적인 진흥정책을 기존 조례에 새로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청구인의 청원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 「대구광역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가 처리함이 타당하나, 청원인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담당 부서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조례개정은 업무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 우리의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본 청원의 건을 채택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첨부서류

- 청원요지서 : [붙임]

[붙임]

청 원 요 지 서

접수년월일	2021. 3. 2	접수번호	2021-2
청 원 인	주소 대구시 동구	성 명	조광현
소 개 의 원	이영애 의원	소 위 관 위 원 회	문화복지위원회
건 명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 청원요지 》

-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문화기반시설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관인 박물관의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청원함.

《 청원내용 》

- 박물관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문화 기반시설,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아이콘으로 지역의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화시설이나, 시립종합박물관이 없는 대구광역시는 공립박물관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

※ 대구문화예술회관소속 3곳(방짜유기박물관, 향토역사관, 근대역사관)

민간위탁운영 3곳(국채보상운동기념관,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대구섬유박물관)

- 지방자치단체장은 박물관 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 박물관 건립 및 운영, 시립박물관 설립 지원 및 육성 등 박물관 진흥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시장의 공약인 시립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박물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고 부실하여 박물관 지원, 육성과 무관한 규정이 되고 있음.
- 이에 대구광역시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박물관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을 청원함.